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의 관계

이 태 현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울증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표현하고 있는 슬프다, 불행하다, 침울하다, 또는 우울하다는 언어들에 가벼운 우울을 의미하고 있다. Seligman은 우울증이 현대생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심리적 장애이며 감기와 같은 흔한 증세라고 설명한다.

아동에게는 우울 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일반적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기에도 우울 장애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벌인 끝에 DSM-III(미국 정신 장애의 진단과 통계 요람)에서는 유아기 정신질환의 분류에 정식, 공식적 병명으로 아동기 우울증을 기술하였으며 아동들에게도 우울의 증후군이 실제 있다는 입장에 일치점을 보았다. 또한 주요 우울증은 유아기를 포함한 어떤 연령층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다소 증상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인기의 임상 증상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성인 우울 장애의 진단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최선남·최외선, 1999, 재인용).

어린 시절의 우울 경험은 한 인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아동의 문제 행동들 중 상당수는 나이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아동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 행동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심리장애의 예방 및 조기 치료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이문숙(1997)은 우울 정서와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연구에서 우울과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가 있으며 비합리적 신념 중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염려와 문제 회피, 좌절반응임을 연구하였다. 손희준(1987)은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에서 우울한 학생들은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교사에 대한 태도, 신체적 질병, 학업성적에서 열등하며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다고 하였다. 한유진(1993)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은 성별,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우울한 아동들의 지도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이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보다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초등학생의 성별, 지역별로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 나.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다.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라.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우울성향

우울증은 적어도 2주 동안의 우울한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상태이다(이문숙, 1997). 아동기 전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아동기 후반기에서는 점차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자기비하, 자

아존중감의 저하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최선남·최외선, 1999,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우울성향은 이러한 우울증에 토대를 두고 마련된 우울 검사지에 기초하고 있다. 우울검사지에 의해서만 측정하였기에 우울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울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비합리적 신념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서 건전한 행동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야기시키는 신념을 뜻한다(설화영, 1997). 본 연구에서의 비합리적 신념은 과도한 자기 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과잉의존 신념 등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 학교적응

학교적응이란 학교생활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됨을 뜻한다(이화정, 2002).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은 학교 교사 및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등 초등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 적응에 의미를 두고 있다. 즉 학교적응이 잘 된다는 것은 이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우울

아동의 우울 증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겉으로 표현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에는 우울 증상이 울음, 반항, 철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아동 전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아동기 후반기에서는 점차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은 대체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저조하게 된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불면증, 식욕부진, 배설기능의

통제가 잘 안되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며,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불안, 화,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고 절망해 있을 때 극단적인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최선남, 최외선, 1999, 재인용).

우울의 성차를 살펴 본 연구들은 생애 초기에는 여아보다 남아가 우울성향의 우세를 나타내지만, 임상과 비임상집단의 연구에서 13살 이후에는 소년들보다 소녀들 사이에서 우울이 더 보편적이며, 성인이 되면 여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최정희, 1998, 재인용). 최정희(1998)는 중학생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 분석에서 여학생의 우울성향이 남학생의 우울성향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했으며, 지역간에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 청소년 상담원(2000)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청소년 1748명을 대상으로 우울실태를 조사한 결과 5.3%인 93명에서 우울이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일치하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다. 한유진(1993)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우울성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박은조(2001)의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성별간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들도 성별, 지역별에 따라 우울성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2. 비합리적 신념

Ellis는 서구 문화권을 중심으로 가장 일반적인 비합리적 신념들을 분류 제시하면서 그들 신념이 왜 비합리적인가를 설명하였는데, 이들 '핵심적인 비합리적 신념' 들은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는 도구 IBT(Irrational Beliefs Test)를 개발한 Jone(1969)에 의해 실증적, 경험적 지지를 받았으며 IBT의 하위신념을 구성한다(강명희, 1999, 재인용). 비합리적 신념에는

첫째, 인정의 욕구, 둘째 과대한 자기기대신념 셋째, 비난경향성 넷째, 파국화 또는 좌절적 반응 경향, 다섯째, 정서적 무책임감, 여섯째, 과잉 불안염려 일곱째, 문제 회피, 여덟째, 의존성 아홉째, 무력감, 열 번째, 타인에 대한 과잉

배려 열 한 번째, 완벽주의 등이다.

비합리적 신념들은 비현실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으로서 개인이 건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에 기초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항상 불안과 고민 등의 정신적 갈등을 겪고 불행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장성수·송준호, 1994, 재인용).

비합리적 신념의 성별, 지역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진용(1989)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차이 연구에서 전체적인 비합리적 신념 차이는 없으나 하위개념인 인정의 욕구와 과대한 자기 기대감에서는 여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문제 회피는 오히려 남자가 높다고 하였다. 김미영(1989)은 결혼가정 학생과 정상 가정 학생과의 비합리적 신념차이에서 4가지 하위 신념 즉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것과 능력과 업적 위주, 위험에 대한 심적 집착,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야 하는 신념 영역은 여학생이 비합리적 신념을 더 갖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경아, 1998)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지역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서 설화영(1997)은 하위영역인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가 없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성별, 지역별에 따른 전체적인 비합리적 신념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하위개념에 있어서는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학교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가정, 학교, 사회로 볼 수 있다. 그 중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아동들의 학교적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응이란 환경의 요청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해 욕구와 가능성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때,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 상황, 학교 수업, 학교 생활, 학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학교수업에 대한 태도,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

학교 환경 전반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 상황 내의 제반 요구에 균형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김용래, 1993).

학교적응에 관한 성별, 지역별 차이에 관하여 설화영(1997)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은 성별간에는 의의있는 차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의의있는 차가 있다고 하였다. 백종흠(1984)은 성별간에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도시 학생이 농촌 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문선모(198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인지적인 영역에서 여학생은 교사 관계, 급우 관계, 수업활동 및 자기 통제 영역에서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정(2002)의 가족 형태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 적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은 지역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간에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우울과 비합리적 신념

선행연구에서 보면 우울과 비합리적 신념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자의 경우가 남자의 경우보다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의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 중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지나친 염려라고 하였다.

5.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시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나 행동에 근거하여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한다. 이런 중요한 타인이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믿음으로 내면화하는 장소도 이제는 가정을 떠난 학교에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서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6. 우울과 학교적응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울, 무기력감이다. 대체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야기되는 우울은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생각하며, 학습동기나 열망이 감소된 지극히 수동적인 학생으로 생각하거나 자포자기적 상태가 되어 자학행동, 공격행동 또는 비행을 초래하기도 한다(노숙영, 1998). 여러 연구들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은 불안, 반항, 자학적 행동, 비행, 학교생활의 문제, 학습의 어려움, 과활동성, 공격적 행동, 신체적 고통 등의 외적인 다른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노숙영, 1998, 재인용).

7. 가설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성별, 지역별에 따라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아지고, 반면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아질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 지역별로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농촌지역으로 화성시내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3개교를 임의 표집하였고, 도시지역으로 수원시의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2개교를 임의 표집하였다. 표집 인원은 총 670명이었다. 그 중에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응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대상자 70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통계적 분석에 사용한 최종대상자는 600명(도시 남 150, 도시 여 150, 농촌 남 150, 농촌 여 150)이었다.

2. 측정 도구

가. 우울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Kovacs(1981)가 구성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한유진(1993)이 변안한 것(Cronbach $\alpha=0.81$)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CDI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총점의 합으로 우울성향정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합이 클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Kovacs는 이 척도가 8~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1$ 이었다.

나. 비합리적 신념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강명희(1999)의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Cronbach $\alpha=0.89$)를 중심으로 하고 박재황(1990), 이문숙(1997)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된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의 합이 클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각 요인별 내용은 요인 1은 '과다한 자기 기대 신념'으로 인정에 대한 욕구, 개인적 완벽성, 좌절적 반응으로 묶었다. 요인 2는 '이분법적 신념'으로 비난 경향과

완벽주의로, 요인 3은 결정론적 신념으로 정서적 무책임감, 무력감으로 묶였으며 요인 4는 '과잉 염려 및 회피 신념'으로 과잉불안 염려와, 문제회피로 묶였다. 요인 5는 '과잉의존신념'으로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의존성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다. 학교적응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강명희(1999)의 학교생활적응 검사지(Cronbach $\alpha=.86$)를 중심으로 하고, 봉갑요(1997)의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된 학교적응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각 영역에서 높은 적응정도를 반영한다. 각 영역별로 전체 30개 문항 중에서 12문항은 정적 방향으로 채점하고, 18개 문항은 부적 방향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용은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등 4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자료수집

조사기간은 2003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이고 수원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에서 2개교, 화성시 먼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에서 3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6학년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총 600부(수원지역 남학생 및 여학생 각각 150명, 화성지역 남학생 및 여학생 각각 150명)의 질문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한 번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이다.

나.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각 질문 문항은 5단계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에 대한 평점은 '전혀 아니다'에 1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학교생활적응검사에 점수를 부여할 때는 30개 문항 중 12문항

은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주었으나 18개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지역별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지역에 따라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가설 1> 성별, 지역별로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 지역별에 따른 우울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F=4.75$,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F=13.0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성별, 지역별 우울성향의 차이 변량 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합 | F | p |
|-------|-----------|-----|---------|-------|------|
| 성별 | 1420.46 | 1 | 1420.46 | 4.75 | .030 |
| 지역별 | 3892.13 | 1 | 3892.13 | 13.02 | .000 |
| 성별×지역 | 437.20 | 1 | 437.20 | 1.46 | .227 |
| 오차 | 178201.06 | 596 | 299.00 | | |
| 합계 | 183971.83 | 599 | | | |

R 제곱 = .03

성별, 지역별에 따른 우울성향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여학생($\bar{X}=56.93$)이 남학생($\bar{X}=53.8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bar{X}=57.93$)이 도시지역($\bar{X}=52.82$)보다 우울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지역별 우울성향 평균과 표준편차

| 성별 지역 | 남자 | | | 여자 | | | 합계 | | |
|----------|-----------|-------|-----|-----------|-------|-----|-----------|-------|-----|
| | \bar{X} | SD | N | \bar{X} | SD | N | \bar{X} | SD | N |
| 도시지역아동 | 52.14 | 15.63 | 150 | 53.51 | 16.04 | 149 | 52.82 | 15.83 | 299 |
| 농촌지역아동 | 55.53 | 18.14 | 150 | 60.31 | 19.09 | 151 | 57.93 | 18.74 | 301 |
| 합계 | 53.83 | 16.99 | 300 | 56.93 | 17.94 | 300 | 55.38 | 17.53 | 600 |

성별, 지역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 비합리적 신념을 분석한 결과 $F=5.60$,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 비합리적 신념을 분석한 결과는 $F=.71$,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지역별 비합리적 신념 차이 변량 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합 | F | p |
|-------|-----------|-----|---------|------|------|
| 성별 | 1930.82 | 1 | 1930.82 | 5.60 | .018 |
| 지역별 | 246.25 | 1 | 246.25 | .71 | .398 |
| 성별×지역 | 283.43 | 1 | 283.43 | .82 | .365 |
| 오차 | 205567.73 | 596 | 344.91 | | |
| 합계 | 208037.80 | 599 | | | |

R 제곱 = .01

성별, 지역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이 여학생($\bar{X}=81.32$)이 남학생($\bar{X}=77.7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별로

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비합리적 신념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지역별 비합리적 신념 평균과 표준편차

| 성별 지역 | 남자 | | | 여자 | | | 합계 | | |
|------------|-----------|-------|-----|-----------|-------|-----|-----------|-------|-----|
| | \bar{X} | SD | N | \bar{X} | SD | N | \bar{X} | SD | N |
| 도시지 역아동 | 77.77 | 18.23 | 150 | 79.98 | 17.63 | 149 | 78.87 | 17.93 | 299 |
| 농촌지 역아동 | 77.67 | 19.26 | 150 | 82.64 | 19.12 | 151 | 80.16 | 19.32 | 301 |
| 합계 | 77.72 | 18.72 | 300 | 81.32 | 18.41 | 300 | 79.52 | 18.64 | 600 |

성별, 지역에 따른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 학교적응을 분석한 결과 $F=4.46,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31, p>.05$ 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 차이 변량 분석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합 | F | p |
|-------|-----------|-----|--------|------|------|
| 성별 | 127.64 | 1 | 127.64 | .46 | .479 |
| 지역별 | 639.82 | 1 | 639.82 | 2.31 | .129 |
| 성별×지역 | 215.51 | 1 | 215.51 | .78 | .378 |
| 오차 | 164799.52 | 596 | 276.51 | | |
| 합계 | 165785.49 | 599 | | | |

R 제곱 = .01

<표 8>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 평균과 표준편차

| 성별 지역 | 남자 | | | 여자 | | | 합계 | | |
|------------|-----------|-------|-----|-----------|-------|-----|-----------|-------|-----|
| | \bar{X} | SD | N | \bar{X} | SD | N | \bar{X} | SD | N |
| 도시지 역아동 | 101.15 | 16.93 | 150 | 101.43 | 17.77 | 149 | 101.29 | 17.32 | 299 |
| 농촌지 역아동 | 100.29 | 16.63 | 150 | 98.17 | 15.09 | 151 | 99.22 | 15.89 | 301 |
| 합계 | 100.72 | 16.76 | 300 | 99.79 | 16.53 | 300 | 100.25 | 16.64 | 600 |

결과적으로 우울성향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도시지역보다 농촌 지역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성별, 지역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2>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표 9>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전체) 및 하위요인인 과도한 자기 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과잉 의존 신념 모두 우울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성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지역별 모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도한 자기 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과잉의존 신념 순으로 우울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에서 성별, 지역별 모두 우울성향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9>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간 상관계수(p)

N=600

| 우울성향 | | 비합리적 신념 | | 이분법적 신념 | 결정론적 신념 |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 과잉의존 신념 |
|------|--------|---------------|---------------|---------------|---------------|---------------|---------------|
| | | 비합리적 신념 (전체) | 과다한 자기 기대 신념 | | | | |
| 전체 | | .66 (.000) | .52 (.000) | .43 (.000) | .60 (.000) | .68 (.000) | .24 (.000) |
| 성별 | 남자 | .62 (.000) | .49 (.000) | .39 (.000) | .53 (.000) | .63 (.000) | .23 (.000) |
| | 여자 | .70 (.000) | .53 (.000) | .48 (.000) | .68 (.000) | .72 (.000) | .24 (.000) |
| 지역별 | 도시지역아동 | .63 (.000) | .46 (.000) | .40 (.000) | .59 (.000) | .66 (.000) | .25 (.000) |
| | 농촌지역아동 | .69 (.000) | .58 (.000) | .48 (.000) | .61 (.000) | .69 (.000) | .23 (.000) |

<가설 3>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전체) 및 하위요인인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은 학교적응(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비합리적 신념(전체) 및 과잉의존신념을 제외한 하위요인에서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은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에서, 여학생은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에서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시지역, 농촌지역 모두 비합리적 신념(전체) 및 과잉의존신념을 제외한 하위요인에서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과다한 자기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학교적응과의 부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잉의존신념은 학교적응(전체) 및 하위요인과 부분적으로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10>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간 상관계수(p)

| 우울성향 \ 비합리적 신념 | | 비합리적 신념 (전체) | 과다한 자기 기대 신념 | 이분법적 신념 | 결정론적 신념 |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 과잉의존 신념 |
|----------------|--------|---------------|---------------|---------------|---------------|---------------|---------------|
| | | 전체 | | .66 (.000) | .52 (.000) | .43 (.000) | .60 (.000) |
| 성별 | 남자 | .62 (.000) | .49 (.000) | .39 (.000) | .53 (.000) | .63 (.000) | .23 (.000) |
| | 여자 | .70 (.000) | .53 (.000) | .48 (.000) | .68 (.000) | .72 (.000) | .24 (.000) |
| 지역별 | 도시지역아동 | .63 (.000) | .46 (.000) | .40 (.000) | .59 (.000) | .66 (.000) | .25 (.000) |
| | 농촌지역아동 | .69 (.000) | .58 (.000) | .48 (.000) | .61 (.000) | .69 (.000) | .23 (.000) |

<가설 4>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학교적응(전체) 및 하위요인인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가 모두 우울성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간의 부적 상관이 높았으며, 남학생, 여학생에서는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가 모두 우울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학업관계는 여학생에서, 교우관계는 남학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간의 부적 상관이 높았으며 도시지역, 농촌지역 모두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가 우울성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관계는 도시지역에서, 교우관계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11>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간 상관계수(p)

N=600

| 학교적응 | | 학교적응 (전체) |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 취미 및 특기 | 학업관계 | 교우관계 |
|------|----|-----------------|------------------------|-----------------|-----------------|-----------------|
| 우울성향 | | | | | | |
| 전체 | | -0.59 (.000) | -0.42 (.000) | -0.41 (.000) | -0.53 (.000) | -0.53 (.000) |
| 성별 | 남자 | -0.56 (.000) | -0.38 (.000) | -0.33 (.000) | -0.50 (.000) | -0.52 (.000) |
| | 여자 | -0.62 (.000) | -0.45 (.000) | -0.49 (.000) | -0.57 (.000) | -0.56 (.000) |
| 지역별 | 도시 | -0.57 (.000) | -0.40 (.000) | -0.37 (.000) | -0.56 (.000) | -0.52 (.000) |
| | 농촌 | -0.61 (.000) | -0.45 (.000) | -0.45 (.000) | -0.49 (.000) | -0.56 (.000)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의 차이점과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별, 지역별에 따른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성향은 성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성향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도시보다 농촌지역 아동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정희(1998)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우울성향이 남학생의 우울성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간에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비합리적 신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비합리적 신념 차이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우경(1998)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비합리적 신념을 더 많이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교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 지역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성향은 비합리적 신념(전체) 및 과도한 자기기대 신념, 이분법적 신념, 결정론적 신념, 과잉염려 및 회피 신념, 과잉의존 신념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농촌이 도시지역 아동보다 우울성향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지역별 모두 과잉염려 및 회피신념에서 우울성향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우울증과 높은 상관이라고 밝힌 Nelson(1977)의 연구, 비합리적 사고 중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염려와 무력감이라고 밝힌 신현균(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 정서와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연구에서 우울과 비합리적 신념이 관계가 있으며 비합리적 신념 중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지나친 염려와 문제 회피, 좌절반응임을 밝힌 이문숙(199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전체)은 전체적(성별, 지역별 포함)으로 학교적응(전체)과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비합리적 신념을 높게 가질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낮다는 설화영(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과잉의존 신념을 제외한 하위 요인 역시 학교적응(전체) 및 그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과잉의존 신념은 학업관계, 교우관계 등 부분적으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초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성향은 학교적응(전체) 및 교사 및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취미 및 특기, 학업관계, 교우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간의 부적 상관이 높았으며, 특히 학업관계는 여학생에서 교우관계는 남학생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간의 부적 상관이 높았으며 특히 학업관계는 도시지역에서 교우관계는 농촌지역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손희준(1987), 한유진(1993)의 우울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우울한 학생은 학교생활 중 교우관계가 불량하고 열등한 학생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고 밝힌 조종현(198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별로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감성적이며, 호르몬분비의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정적인 생활을 주로 함으로써 행동반경의 제한, 또래집단 형성의 부족 등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아동들이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한 활동력의 둔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고, 또한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지도할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작용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초등학생의 우울성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도록 하는 세심한 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합리적 신념을 갖도록 하는 상담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사의 역량을 벗어나는 사례의 경우,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인사나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원 받음으로 아동의 생활지도 및 상담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는 올바른 교우관계의 형성을 위해 집단활동이나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아동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자신의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도록 하며 서로의 성장발전을 위해 건전한 교우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과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병행해 나감으로써 학업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을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어서 이들에게 용어를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문화 및 정서, 그리고 상황에 맞는 문항개발과 아울러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우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중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 내용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즈음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 5, 6학년이 되면 벌써 사춘기 변화가 일어난 아동들이 많이 있다. 이 시기에는 우울한 기분으로 나타나는 증세 외에 인지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므로 자신은 형편없는 존재이며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므로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이 많이 손상되어 열등감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우울증은 더 급증하여 학교중퇴, 자살, 약물중독, 품행장애로 번져 반사회적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이혜련, 1993).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동기 우울증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우울한 초등학생의 조기 치료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ionship of Depression, Irrational Faith and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ae-hyeon Lee

Major in Elementary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irrational faith and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their sex and region,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teach children with the likelihood to be depress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irrational faith and school adaptation, and help them to have healthy emotion and behaviors. To achieve these goals, following agenda were set.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he depression, the irrational faith and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their sex and region?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on characteristics and the irrational faith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rrational faith and the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th,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pression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resolve these agenda,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Grade 6 students from th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uwon and Hwaseong.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two schools in Suwon and three schools in Hwaseong which were randomly chosen. The subjects were 670 in total. 70 insincere answer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erefore the subjects used in the analysis were 600 in total(15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city respectively and 15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rural

area respectively).

The tools used for this study wer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Irrational Faith Test (over-self-reliance, dichotomy, determinism, over-concern, evasive faith, over dependent faith), School Adaptation Test (Attitudes to teachers and school environments, hobbies and specialties, academic achievements, peer relationship). Materials were processed with the SPSS program for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All the statistical values were verified at .05 level.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irst, in the analysis of depress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F=4.75$, $p<.05$). Female students ($\bar{X}=56.93$) showed a little higher value than male students ($\bar{X}=53.8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gions ($F=13.02$, $p<.001$), too. Rural area students ($\bar{X}=57.93$) showed higher value than city area students ($\bar{X}=52.82$). When analyzing irrational fai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F=5.60$, $p<.05$). Female students ($\bar{X}=81.32$) showed a little higher value than male students ($\bar{X}=77.7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s. When analyzing the school adapt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ither sex or region.

Second, depression and irrational faith showed highly positive correlations in all areas. In particular, over concern and evasive faith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clination ($r=.68$, $p<.001$). When looking into the results by sex and by region, female students ($r=.70$, $p<.001$) and the rural area students ($r=.69$, $p<.001$) showed higher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irrational faith than male students and city area students ($r=.63$, $p<.001$). Additionally, in all areas including by sex and by region,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In all variables such as male students ($r=.63$, $p<.001$), female students ($r=.72$, $p<.001$), city area students ($r=.66$, $p<.001$), and rural area students ($r=.69$, $p<.001$), over concern and evasive faith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clinations.

Third, irrational faith (overall) and its sub factors such as over-self-reliance, dichotomy, determinism, over-concern and evasive faith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chool adaptation (overall) and its sub factors in the scope of $r=-.27\sim-.52$. Determinism out of the sub factors of the irrational faith ha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aptation (overall) and sub factors at the scope of $r=-.37\sim-.51$. However, over-self-reliance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aptation (overall) and its sub factors only partially. When looking into the results by gender, both gender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rrational faith (overall) and its sub factors with school adaptation. Male students showed high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school adaptation (overall) and its sub factors in determinism ($r=-.35\sim-.52$) and over-concern and evasive faith($r=-.31\sim-.51$), and female students showed in over-self-reliance ($r=-.27\sim-.45$). However over-self-relia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aptation and its sub factors only partially. When looking into by region, both city and rural area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rrational faith (overall) and its sub factors, and school adaptation. Rural areas showed higher negative correlation in irrational faith (overall) ($r=-.39\sim-.53$) and over-self-reliance ($r=-.32\sim-.44$) and dichotomy ($r=-.28\sim-.39$) than city areas. However over-self-relia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aptation and its sub factors only partially.

Fourth,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in all areas. In particular, academic achievements and peer relationship showe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53$ $p<.001$). When looking into the results by sex and by region, female students ($r=-.62$, $p<.001$) and rural area students ($r=-.61$, $p<.001$) showed higher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than female students ($r=-.56$, $p<.001$) and city area students ($r=-.57$, $p<.001$). Although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in all areas by sex and by region, male students ($r=-.52$, $p<.001$) and rural area students ($r=-.56$, $p<.001$) showe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in peer relationship and female students ($r=-.57$, $p<.001$) and city area students ($r=-.56$, $p<.001$) showe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in academic reco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proposed to provi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likely to be depressed very easily with careful counselling and teaching based on the attention and love in school fields so that they can adapt themselves to home, school and society with positive and reasonable thinking.